

여수 엑스포 유치 삼성·LG도 나섰다

글로벌 기업 유럽·중동 투자지원 강화 정부, TF 확대... 회원국에 사절단 파견



2012 세계박람회를 여수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소매를 걷어 붙였다.

정부가 BIE(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에 고위사절단을 파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치지원TF(태스크포스)를 구성기로 한 데 이어, 삼성과 LG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치활동 지원을 다짐하는 등 BIE 회원국을 상대로 한 표발 다지기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2012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4개월가량 남겨두고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BIE 회원국의 표심을 확실하게 다지기 위한 유치전략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파리에서 열린 141차 BIE총회 이후 모로코와 폴

란드 등 경쟁국들이 예상외로 선전을 하고 있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에 해수부에 설치돼 있는 박람회유치 관련 TF를 확대·강화하고 외교부에 BIE회원국 동향을 체크하는 TF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이와 별도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박람회유치위원회,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유치지원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BIE회원국이 몰려있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고위인사로 구성된 유치사절단을 파견기로 했으며, 특히 아직까지 지지국을 결정하지 않은 상당수 회원국을 상대로 장관급 사절단을 집중 파견, 지지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경련 등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 민간부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유치지원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국내 주요 기업들에게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미 유치전에 뛰어든 가·현대차 그룹 외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SK를 비롯 유럽과 중동지역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들도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여수박람회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은 기간 동안 국내 12개 대기업이 분담, BIE 회원국을 상대로 유치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으며, 각 기업의 회장 및 사장단으로 구성된 민간CEO 사절단도 파견하는 등 박람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서울과 여수에서 개최될 예정된 '2차 국제심포지엄'에는 BIE 회원국 대표와 관계자들을 최대한 많이 초청,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국민의 열망과 국가적 기대의향을 충분히 보여준다는 유치전략을 마련했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모로코 등 경쟁국의 유치활동이 워낙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모두가 긴장감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경쟁의 실태를 뒤쫓아가지 않도록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 반드시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는 18일 오후 재단회의실에서 긴급이사회를 갖고 신정아 감독 선임 파문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했다. 한갑수 이사장 등 이사 27명 전원은 신세 문제와 관련,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지고 이날 사퇴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이사진 전원 사퇴

재단, 신정아씨 고소... 내년 비엔날레 단일감독 체제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한갑수 이사장과 이사들이 18일 가짜박사학위로 제7회 광주비엔날레 내국인 공동예술감독 선임이 취소된 신정아(35)씨 사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관련기사 3면>

재단은 또 국내 감독 선임취소에 따라 지난 4일 선임된 외국인 감독인 오쿠이 엔위지(미 샌프란시스코 미대 학장)씨 단일 체제로 내년 제7회 비엔날레를 치르기로 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18일 오후 재

단 회의실에서 제99차 이사회를 열고 한갑수 이사장과 이사 27명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갑수 이사장은 "이사 전원이 감독선정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로 뜻을 모았다"며 사퇴배경을 밝혔다. 재단은 이사진 전원 사퇴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면적 이사인 광주시의회의장, 광주미 협회장, 예총 회장 등 8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를 구성, 당분간 새 이사장 및 이사 선임 등 주요 재단업무를 맡도록 했다.

하지만 새 이사장을 비롯한 차기 이사회 구성에만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불과 개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회 광주디자인 비엔날레와 내년 9월 개막되는 제7회 광주 비엔날레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정아씨 파문과 관련, 이사들의 '퇴진론'과 '사태 수습론'이 맞서면서 2시간 가량 격론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사들은 1시간 가량 비공

개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이 사퇴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개최 직전 광주 민예총 등 20여 지역 문화단체로 구성된 예술인 연대는 광주 비엔날레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엔날레 감독 선임 파행사태에 대한 원인규명 ▲이사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재단은 이날 오전 가짜 박사 학위 파문으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신정아 전 공동예술감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윤영기자 yanfoot@kwangju.co.kr

브라질 여객기 폭발 참사

착륙 중 미끄러져 200여명 사망... 한국인 탑승자 없어

17일 저녁(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 콩고나스 공항에서 발생한 탐(TAM) 항공사 소속 에어버스 A-320 여객기 충돌사고로 탑승자 176명이 전원이 사망했다.

<관련기사 6면>

탐 항공사는 이날 밤 사망자 명단을 발표하고 "여객기가 충돌한 뒤 곧

바로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나면서 탑승하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객기는 충돌과 동시에 발생한 화재로 꼬리 부분만 남긴 채 전소됐다.

외교통상부는 공개된 탑승자 명단에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여객기 뿐 아니라 항공기와 충돌한 건물에서도 최소한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망자가 추가 발견되면서 전체 사망자 수는 최대 250명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항공당국은 이날 오후 5시 16분 브라질 최남부 포르투 알레그레를 떠나 6시50분께 콩고나스 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진 뒤 20여m 아래 워싱턴 루이스 도로변의 화물관리사무소 및 주유소와 충돌했다고 사고 상황을 설명했다.

/성파울루=연합뉴스

北 "테러국 명단 삭제" 美 "연내 핵불능화 돼야"

6자회담 베이징서 개막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18일 오후 2시30분(현지시간)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했다.

<관련기사 6면>

참가국 수석대표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2·13합의의 초기단계 조처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등 다음 단계

조치의 이행문제, 그리고 6자 외교장관 회의 및 5개 실무그룹(WG)회의 개최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북한측은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13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상응하는 적당한 대가'를 제공하면 핵폐기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또 중유 95만에 상당하는 경제·에너지 지원과 함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공 교역법 적용 해제 등 정치·안보적 조치가 비핵화 단계에 맞춰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은 궁극적으로 핵폐기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2단계에 취해질 불능화 조치가 '폐기에 가까운 수준'에 달해야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불능화 시점도 연내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시한' 설정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국 중국은 19일까지 수석대표 회담과 참가국간 양자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번 회담의 결과를 담은 공동문건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징=연합뉴스

유망학원 장학금 67년 역사인 전통
남부대학교
www.nju.ac.kr
전남과학대학
www.jnu.ac.kr

국제약품의 시인성과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캠페인
제1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약'을 수상하였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북풍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허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갖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internationalpharm.com
고객센터 전화(수도권 부속) 080-022-2200

참고: 023-11900